

도시경제, 이제는 창조성이다

○ 왜 창조성인가

- 훌륭한 아이디어 높은 이윤을 창출하는 제품을 낳는 오늘날의 경제에서 인간의 본래적 속성 가운데 하나인 창조성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음
- 오늘날 기업활동에서 지상과제가 되고 있는 ‘혁신’은 새로운 기술적 인공물의 형태이건, 새로운 사업 모델 혹은 방법이건 간에 창조성의 산물임. 그래서 저명한 경제학자 슈페터도 이미 오랜 전에 혁신을 ‘창조적 파괴의 과정’으로 언급했음
- 지식과 정보는 창조적 경제를 움직이는 창조성의 도구이자 재료에 해당하며, 이들은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수확체증의 원리가 작용함

○ 창조적 경제와 인적자원

- 이같은 경제적 흐름을 ‘창조적 경제’(creative economy)라고 부르며, 창조성과 혁신이 경제성장의 열쇠임을 강조하고 있음
- 창조적 경제의 발전은 새로운 노동문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새로운 인적자원, 이른바 창조적 계급(creative class)에 기초함
- 즉 높은 숙련과 지식으로 무장하고 과중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면서도, 문화, 체험의 중시, 암벽타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적극적인 삶, 신체와 건강에 대한 탐닉, 여가의 능률적 활용 등 다양하고 개방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여가를 추구함

창조적 경제

- △ 비즈니스 위크지가 처음으로 2000년 8월에 ‘창조적 경제’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후 존 호킨스가 창조적 경제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 그는 15개의 창조적 산업 분야를 망라해 창조적 경제를 규정
- △ 다음과 같은 산업 부문으로 구성됨
 - 연구개발 · 출판 · 소프트웨어 · TV와 라디오 · 디자인
 - 음악 · 영화 · 장난감과 게임 · 광고 · 건축
 - 공연예술 · 공예 · 비디오게임 · 패션 · 미술
- △ 1999년에 전세계 15개 창조적 산업분야의 연간 수입을 2조 2,400억 달러로 추산. 미국은 9,600억 달러의 소득을 차지하여 선도적인 창조적 경제국가임(John Howkins, 2001, *Creative Economy*, New York: Penguin Press)

○ 창조적 경제의 하부구조, 창조도시

- 창조적 경제는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제도적 시스템에 의해 뒷받침을 받아야 함
 - 첫째, 기술적 창조성과 기업가정신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 둘째,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참신하고 더욱 능률적인 방법
 - 셋째, 모든 종류의 창조성에 이바지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문화적, 지리적 환경
-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건이 혁신적인 기업활동이나 효율적인 산업조직에 직결된 요건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요건은 ‘창조적 도시’(creative city)의 태동의 주요 요건이라 할 수 있음
-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보스턴, 시카고, 시애틀 등 현재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경제성장의 중심지들은 창조적 도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음
- 최근 창조적 도시를 둘러싼 논의와 이에 기초한 지역경제개발 전략

은 대도시 정부의 산업정책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창조성 지수와 경제발전의 3T

-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지역경제학자 리차드 플로리다(R. Florida)는 경제성장이 창조적 중심지(도시)로 몰려든 창조적 인적자원을 신제품 개발이나 새로운 하이테크 기업 창업과 같은 창조적인 경제적 성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음을 지적함
-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최근 개발된 지표가 바로 ‘창조성 지수’(Creativity Index)인데, 이는 ① 창조적 계급의 비율 ② 혁신지수(일인당 특허로 측정) ③ 하이테크 지수 ④ 다양성지수(보헤미안지수)로 구성될 수 있음
- ※ 보헤미안 지수 : 작가, 디자이너, 음악가, 배우, 감독, 화가, 조각가, 사진가, 무용수들의 수를 지수화한 것임
- 이들 창조성 지수는 장기적인 지역의 경제잠재력을 제시하는 지표로 활용됨
-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창조적 중심지는 창조성 지수 속에 반영되어 있듯이, ‘경제발전의 3T’라고 부른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포용성(Tolerance)을 모두 겸비하고 상호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물론 경제성장에 기술, 인재가 가지는 중요성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강조된 바 있지만, 이에 더해 최근에는 포용성이라는 요소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앞서 언급한 창조적인 계급을 염두에 둘 때, 다양성과 개방성을 촉진하는 지역은 다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유치할 가능성은 물론, 이들 사람들을 통해 지식의 흐름을 가속화시켜 궁극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혁신과 하이테크 사업형성, 일자리창출의 가능성을 증대

시킬 것임

[표] 창조적 경제에서 지역순위(미국): 창조성 지수

순위 (큰지역)	도시	창조성 지수	순위			
			창조적 계급	하이테크 지수	혁신 지수	다양성 지수
1	샌프란시스코	1,057	12	1	5	1
2	오스틴	1,028	7	13	6	23
3	샌디애고	1,015	6	2	12	41
3	보스턴	1,015	30	14	13	4
5	시애틀	1,008	20	3	34	11
6	롤리-더렘	996	5	16	8	52
7	휴스턴	980	22	19	39	16
8	워싱턴-볼티모어	964	4	5	85	16
9	뉴욕	962	25	15	54	20
10	달라스	960	14	28	11	60
10	미니아폴리스-세인트폴	960	55	6	40	15
12	로스엔젤레스	942	46	4	79	5

* 자료: R. Florida,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2002.

○ 창조적 도시와 도시개발

- 지역경제학의 오래된 논쟁 가운데 하나는 기업이 있는 곳으로 인적자원이 이동한다고 하는 관점(People-To-Job)과 인적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기업이 이동한다고 보는 관점(Job-To-People)간의 논쟁임
- 창조적 도시론은 이런 논쟁에서 후자에 강력한 논거를 제공하고 있는 셈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뉴욕에서 베를린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문화와 패션(즉 예술적, 문화적 활동)의 중심지였던 도시들이 또한 유능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새로운 기술집약적 산업을 활성화하는 선도적인 중심지로 부상했다”(2000년 4월자 이코노미스트)는 기지적도 수긍할 만한 것임

- 결국 창조적 도시 관점은 이동성이 크고 유연한 기업들이 창조적 인적자원의 중심지에 대거 집적하는 새로운 경제여건이 최적의 도시환경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창조적 도시와 문화자산

- 실제 최근의 연구들은 일상적 수준의 다양한 소비, 여가시설이 창조적 계급을 유인하는 효과적인 도시자산임을 밝히고 있음
- 가령, 활기찬 거리의 삶,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야외 오락시설(술집, 야외카페, 최신 유행의 음악무대), 화랑, 공연공간 및 극장 등 다양한 문화 및 여가시설, 다양성과 개방성을 포용하는 분위기 등이 바로 이들에 해당됨
- 최근 전세계의 많은 도시에서 나타나듯이 창조적 도시로의 성장을 향한 도시개발과 도시문화전략의 연계는 현대 산업경제에서 창조성, 창조적 인적자원이 갖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음
- 예컨대, IT산업의 산실 실리콘밸리에서 비영리기구인 Cultural Initiative Silicon Valley의 주도로, 최근 악화되고 있는 환경을 ‘살만한 공동체’, ‘창조적 공동체’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뉴욕 맨하탄에서 911테러 이후 재건을 모색함에 있어서 던져진 경제개발과 예술문화의 전략적 연계에 관한 일련의 전문가들 제언 등은 모두 창조적 도시에 기반함

정병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jbs66@sdi.re.kr